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10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오후집회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축구 경기가 오늘 오후 4시부터 한강이촌지구 거북구장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원로나들이가 25일(화)에 있습니다. 철원 지역으로 갑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도하며 감사의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찬양제가 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세미나가 11월 12일(토)에 열립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줄이고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 예배 전에는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소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들의 목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 예배 후 준비된 식사를 맛있게 드시되 잔반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식 당 봉 사 : 안홍숙 최성애 이명희 이증자 이수정a김세진 서원금  
 10/30 식당 봉사 : 정영선 백성례 한숙경 안경아 김수진 김기성 임창선  
 오늘설거지봉사 : 안경아 김기성 전충길 임주빈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노우종 이정림 한상익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5(통50). 큰 영화로신 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허락해주신 한 해의 시간이 종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채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나무처럼, 감사의 결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리비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독재자마저 사라진 리비아가 올바른 절차를 따라 재건되게 해 주십시오. 피의 보복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열강에 의해 한 나라가 유린당하는 역사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리비아 국민의 오랜 염원인 자유와 민주, 평화와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43:1 ..... 인도자  
 ♠ 교 독 문 ..... 40. 시편96편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장영숙전도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286(통218). 주 예수님 내 맘에 ..... 다함께  
 ♠ 성경봉독 ..... I. 요3:1-2 ..... 윤 윤 선생  
 ..... II. 마12:33-37 ..... 박석희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 찬양대  
 말 씀 ..... I. 니고데모의 회심 ..... 신진식 선생  
 ..... II.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 김기석 목사  
 거듬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준우 우순덕 강인식 김정숙 권미숙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정길 최숙화 김준호 곽혜자 박영희 배근수 김금순 윤수진 임주빈  
 최현옥 정연희 조병익 조정연 최선미 허호범 박성실 안보혜 박권동  
 곽새롬 김재흥 최희영 무명2

### 월정헌금:

김순자 김영순 송임희 이봉옥 정완수 김재광 김혜권 박재임 변재민  
 이소혜 이윤석 박안수 흥복선 최재욱 이수정 김범진 김미현 무명

### 감사헌금:

이정은 강지은 배근수 김금순 신진식 변혜정 민병배 문현미 김 극  
 방문성 박혜경 정지윤 이춘재 박규석 김광수 문금석 강미선 무명  
 6여선교회

### 녹색꿈헌금:

강순배 김용진 박효선 김범진 김미현 무명

### 생일감사헌금:

박옥식 민병배 이해인

	장혜숙	백혜숙	백혜숙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김윤수
	임정자	최경미	정복순	임정자
	문영혜	이명희	김영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진정숙	최희영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백묘현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정숙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순정
	이형숙	권미숙	야외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이수정
	정영선	이현숙	송양진	김희우
	이영란	박미영	이영란	방극숙
	박혜경	조항미	임창선	이기분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근식	교회	교회

## 단풍나무

김현주

단풍나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부끄러운 날들 이어지더니  
 가을이 오고 말았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던 나는  
 산에 올라 못되게도  
 단풍나무에게 다 뺏어내  
 버렸지요 내 부끄러운 마음  
 내려오다 뒤돌아보니  
 아, 단풍나무,  
 고만, 온몸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데요  
 내 낮빛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뻘뻘해질수록  
 가을산마다, 단풍나무  
 붉게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찬 양	541. 꽃이 피는 봄날에만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선을 쌓으며 사십시오. 악한 언행은 삼가며 사십시오. 비바람 그치고 하늘빛 와 닿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다함께 : 아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일상을 채워가진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매순간 마음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살겠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 바른 것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고목 같은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십시오.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김기석 목사 기도 : 정옥영 권사	골로새서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백성래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황경순 집사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장재영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정한구 박효선 홍복선 권미숙
	헌금위원	김인걸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서울을 떠나다

나는 지금 서울을 떠나고 있다. 서울을 빠져나오고 있다. 충북 단양의 산 위의 마을로 향하고 있다. 떠나야 한다. 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그런데도 흙과 분리되어 아스팔트를 밟고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서 불야성의 조명을 바라보며 사이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조울증의 도시로부터 떠나야 한다. 흙을 밟고 나무 숲 사이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인정으로 살아가는 푸른 생명의 삶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 갈망의 마음과 영혼의 속삭임을 들으며 나는 떠나가고 있다.

서울에서 단양, 승용차로 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5박 6일 여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

떠나는 내 발걸음은 생명의 빵과 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영혼들의 상징이며 성사다. 어쩌면 도시를 떠나고 싶지만 마음만 간절한 사람들의 혼불이요, 떠나야만 살 길이 보인다는 투신의 상징이다. 그 상징이 가톨릭 사제인 내게는 의미심장한 영성의 행위이기에 ‘성사聖事’라고 했다.

서울. 서울은 내가 속한 교구이고 동료 사제들과 공동체와 길벗들이 있는 곳이다.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들이 사는 곳이며, 1967년에 상경하여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인연의 땅이다.

사제는 ‘교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순명하는 몸이다. 교회, 가족, 동창, 이웃들... 내게서 그런 인연들의 끈을 잘라버린다면 나는 전신줄에 걸린 방패연이 되고, 줄 끊어진 거문고처럼 내 존재의 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그물처럼 얽히고설킨 인연, 죽기 전에는 버릴 수 없는 관계의 몸이다.

그래도 나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선지식들이 서울을 떠났으며 나 또한 그들이 낸 귀향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교님과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웃들에게 왜 서울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더러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면 모든 인연들과 더욱 친밀하고 의미 있는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첫날 오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걷기만 하자 마음먹었지만 온갖 잡념망상이 가득하다. 목주기도를 무한정 바치면서 모란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이배지 고갯길에 들어선다. 옛길이라 차량도 사람도 다니

지 않는다. 다른 자동차 전용도로가 직선으로 뚫렸기 때문이다. 오르막이지만 힘들지 않다. 이 고개를 넘으면 또 어떤 고개가 나올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 알 수 없다. 어차피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만 안다.

드라이브족으로 보이는 승용차 한 대가 느리게 지나면서 자꾸 쳐다본다. 등산로도 아닌데 어딜 가느냐고 묻는 듯하여 친절히 대답한다.

“난 피난민이래요. 내 뒤쪽을 봐요. 지금 혼돈의 땅을 탈출하는 중이요. 풍랑을 피해 항구를 찾아가는 조각배랍니다. 단양으로 가는 중이예요. 걸음이 바쁜 것은 목숨을 살리기 위한 양탈이라서 그럴 겁니다. 나는 다가오는 장마를 피해 집을 떠나는 개미지요. 그들은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나도 개미처럼 기어가서 공동체 대열에 합류하려는 겁니다. 성경을 아세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지금 심상치 않게 밀려오는 먹구름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중이랍니다. 살길을 찾아 산 위의 마을로 가고 있지요!”

나는 소비문화라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자 홍해를 탈출하는 이집트의 ‘하삐루’다. 탈출은 결행했지만 배고픔과 사막의 목마름으로 인해 노예생활이 그리울지도 모른다. 고기 가마와 풍성한 야채가 생각나듯이 시시때때로 서울의 삶이 그리울 것이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죽는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내린 유황불의 저주를 뒤로하고 탈출하던 롯의 아내는 도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본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

길 위, 좋은 상징이다. 길 위에 있는 것은 앉아 있지 않다. 길도 이정표도 살아 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운동한다. 이상은 빛나고 실천은 기운차다. 제자들에 대한 스승 예수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대화도 길을 가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길은 가르침이요 희망이며 하느님 나라의 운동이다. ...

산 위의 마을, 공동체라는 불투명한 삶으로 향하는 걸음이 비록 모래바람 흩날리는 사막의 밤을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은수자의 여정과 같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그분이 함께 걷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